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8호 발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백범 김구의 후예’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17일(수)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37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김용만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창시절을 보내고 조지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영주권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귀국, 공군 학사장교(125기)로 임관해 영공수호에 앞장섰다. 김씨 가족은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명문가다. 조부인 김신씨(공군학사 2기)는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부친 김양씨(공군학사 70기)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병무청이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까지 인정하며 4대가 국방에 헌신한 김씨 가족에게 2014년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시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용만 이사는 전역 후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몸을 담게 된다. ‘애국하러 출근한다’는 회사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 국가안보 제고와 자주국방 실현에 일조하고자 애썼다. 2015년에는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아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 철거, 위안부 평화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했다. 나아가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 단장으로서,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홍보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서울시와 시민들 간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김용만 이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이후에는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파하는 역할에 힘써왔다.

아울러 김용만 이사는 독립운동사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백범학교’를 꾸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정신교육에도 매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임하며 독립운동사 알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간 김용만 이사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끊임없는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사진을 당대표 회의실에 설치하는 제막식도 준비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는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 도입부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제막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을 강조하고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용만 이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의 역경을 딛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홍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김용만 프로필

<붙임 2> 김용만 인재 소개

□ 일반사항

- 1986년 서울 출생(37세)
- 美 하와이주, 미드퍼시픽 인스티튜트(Mid-Pacific Institute) 졸업(2005)
-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졸업(2010)
- 대한민국 공군 장교 전역(학사 125기, 정보 특기)



□ 주요 경력

- LIG넥스원(주) 근무 ('14~'20)
- 서울특별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15)
- 서울특별시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단 단장 ('17~'19)
- 서울특별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준비위원 ('19~'20)
-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역사정명특위' 위원장 ('22)
- (주)범부 대표이사(창업) ('21~현재)
-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22~현재)
- LIG넥스원(주) 근무(재입사) ('22~현재)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22~현재)

□ 상훈

- 2005년, 美 대통령(조지 W. 부시) 최우수 학생 표창(Outstanding Academic Excellence Awards) 수상('05.08.06, 동아일보 보도)
- 2014년, 병무청 병역명문가 지정('14.07.04, 연합뉴스 보도)

☞ 조부 김신(공군학사 2기), 부친 김양(공군학사 70기), 본인 김용만(공군학사 125기)

대한민국에 헌신한 백범 김구의 유지를 받든 노력과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으로 조부이신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제6대), 그리고 부친이신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제27대)의 집에서 자랐다.

조부 김신 참모총장의 추천으로 경험을 위해 중학생 시절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명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가 정치학을 전공했다. 뚜렷한 국가관과 애국정신을 강조한 가풍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영어 실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조지 W 부시 당시 美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학생 표창장을 수상할 정도로 노력하는 학생이었다.

자주국방을 위한 병역명문가의 선택

대학졸업 직후 바로 귀국하여 조부와 부친의 길을 따라 대한민국 공군 정보장교로 임관했다. 병무청에서는 3대에 걸친 병역이행과 백범 선생의 광복군 창설을 인정하여 백범 가문을 2014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보장교 시절 국가 안보와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 취직했다. 해당 회사에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당시 ‘LIG넥스원’은 “애국하러 출근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항상 내 자신보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라” 집안의 가르침과 맞닿은 곳이 있어 입사를 선택했는데, 직장생활에서도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회 활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역사왜곡에 대응

2015년에는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첫 기념 사업을 함께했다.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이 87년 만에 철거되는데 기여했고, 서울시민 광복 토크 콘서트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정신조차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의 광복기념사업회 참여는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역사왜곡 세력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찾으려 전국 100주년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1948년 건국을 주장하며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용만 이사의 역사 바로잡기 활동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주도하고 역사정의 수립 활동에 노력

김용만 이사는 서울시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준비위원회 위원과 시민위원단장으로 활동하며 남산 국치의 길 'ㄱ' 조성, 안국역 항일 독립 테마 역사 조성,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강좌 등을 준비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효창독립100년공원 조성' 사업과 같은 후속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독립운동가와 후손,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만나며 역사왜곡의 움직임이 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올바른 이름을 되찾자는 '역사정명특별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에 협력했고,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역사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을 교육하는 일을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직도 겸임하면서 역사왜곡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

김용만 이사는 헌법전문에 적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국절이라는 반헌법적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은 정치권이 부화뇌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홍범도 장군 및 독립유공자들의 흉상 이전 논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국민의힘 비대위원 망언 등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김용만 이사는 당 강령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명시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